



## 남북 합작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왕후심청'

글 | 신선자 객원기자

전통설화 통해 남북 문화 교류 '교두보' 마련 ... 제작비 70억원 규모 대작

전통설화 '심청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순수 창작 애니메이션 '왕후심청(Empress Chung)'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더불어 세계의 보편적인 감각과 기술이 융화된 이 작품은 특히 북한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됐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에이콤프로덕션의 대표로 더욱 잘 알려진 벨슨 신 감독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모토를 다시 한번 실현시킨다는 포부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왕후심청'을 만나보자.

한국의 코아필름서울이 미국의 코아필름(KOAA Films, Inc.)과 공동으로 제작 중인 '왕후심청(SEK studio)'은 한국 고유의 정적인 모습과 스펙터클한 동적인 모습을 고루 지닌 한국의 전통 설화 '심청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순수 창작 애니메이션이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더불어 세계의 보편적인 감각과 기술이 융화된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총 제작기간 6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제작되고 있는 '왕후심청'은 현재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메인프로덕션이 모두 완료돼 사운드, 편집, 더빙 등 후반 효과작업이 한창이다. 한국의 문화를 널리 세계시장에 선보임과 동시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현대적 감각과 접목, 상업적 성공으로 이루어 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시작된 '왕후심청'은 제작비만도 7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완성도 되기 전에 국내외적으로 술한 화제를 뿌리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 프로젝트 규모 70억원

해외에서 더 유명한 에이콤프로덕션의 대표 넬슨 신 감독이 40여 년이 넘는 오랜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총지휘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전통설화를 바탕으로 한국 고유의 정서를 살리면서도 헐리우드적 연출 감각과 기술을 접목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점 등은 이 작품이 세간의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때문에 완성도 되기 전에 '안시 페스티벌(Annecy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2003)'에서 특별상(Special Distinction Prize, 프로젝트 부문)을 수상하고, SICAF '제1회 완성 파일럿 필름 공모전' 본선에 진출하는 영예도 안았다. 또한 MITV와 MIPCOM 등 해외의 각종 애니메이션 관련 행사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왕후심청'을 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위에서 열거한 다양한 요소를 차지하고 '왕후심청'이 술한 화제를 낳은 가장 중심이 될 요인으로 꼽는 것은 북한에서 OEM으로 제작됐다는 점이다.

이것이 '왕후심청'이 한국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작품으로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이다. '왕후심청'은 북한의 메인 프로덕션에 의뢰해 OEM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평양에 있는 '조선 4.26 아동영화 촬영소(대외적으로는 SEK스튜디오)'에서 원·동화의 100%를 소화했다. 이처럼 SEK스튜디오를 통한 애니메이션 제작은 단순히 애니메이션 제작비 절감의 차원을 넘어 남북간 문화 협력 및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최초의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한국의 문화를 소재로 한 '왕후심청'의 제작을 평양의 회사와 함께 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협업의 차원을 넘어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그간 많은 애니메이션 및 영화 관련자들이 북한과의 합작 또는 협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그 실질적인 성과를 일구어 내는 것은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비단 일하는 환경 및 제반 사항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작품의 소재와 주제 등에 대한 북측의 남다른 고집 또한 하나의 이유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심청'이 남북합작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둬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작품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넬슨 신 감독의 노고가 컸다.

'왕후심청'과 북한의 인연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시페스티벌 MIFA에 참가한 넬슨 신 감독은 홍보차 행사에 참가한 SEK 부스를 통해 북한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MIP-ASIA에 참가한 북한의 작품들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된 신 감독은 합작, 혹은 OEM 형태의 공동제작을 검토했고 2000년부터 가능성을 타진, 2001년 초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오고갔다는 게 제작사측 설명이다. 제작사측은 "처음 스트립트의 일부를 본 북한측은 '원전이 너무 훼손된 것 아니냐'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신 감독의 지속적인 설득과 스토리보드의 뛰어난 구성력에 차츰 흥미를 갖고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해 남북합작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제작 당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왕후심청'은 전통설화 '심청전'을 기본 골격으로 가져가지



만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라 북한측에서 받아들이기는 생소한 면이 있었던 것이다.

애니메이션의 재탄생될 '왕후심청'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 심청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18세기 한국, 조선 왕조는 이웃나라들의 침략으로 고통 받고 무력한 양민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혼란을 틈타 권력을 탐하는 일부 대신들이 역모를 꾀하게 된다.

이들은 대신 중 하나인 심학규(심청의 아버지)에게 역모에 가담할 것을 청한다. 충성스럽고 강직한 심학규는 타협을 여지도 없이 이들의 강요를 거부한다. 그 결과, 역모자들은 심학규의 집에 불을 지르게 되고 단추(심학규네 집 개), 심학규, 그리고 갓난 아기 심청만이 살아남게 되는데, 이 사고로 심학규는 시력을 잃게 된다.

돈 한 푼 없고 눈까지 먼 심학규는 역모자들이 찾을 수 없는 비밀 장소로 숨어들어가 딸 청을 키운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심청 또한 정직하고 신실하며 의지가 굳은 소녀로 성장한다. 매일 남의 집 심부름을 하여 아버지를 돕는 것이다.

동물 친구 단추(개), 가희(거위), 터병이(거북이)와 함께 심청의 가족은 화기애애하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 가끔씩 유일하게 성질 나쁘고 시끄러운 이웃 뽕덕이와 뽕덕 어머니 짜증스러운 일들로 귀찮게 굴 때는 있지만.

어느 날 심학규는 물건을 팔러 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서 떨어지게 된다. 다행히도 몽은사에서 나온 스님 한 분이 다리를 건넌다가 그를 구해준다. 이 사고 이후 청은 절에 가

서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석을 시주할 테니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중국 상인들은 험난한 뱃길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용돌이 형상을 한 사악한 괴물 인당수가 이 뱃길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인당수는 늘 색다른 제물을 원해서, 바다에 커다란 소용돌이를 만들고서 악랄한 문어들을 보내 선원들을 공격한다. 중국 상인들은 이 괴물을 달래기 위해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하게 된다. 뽕덕 어머니의 중개로 청은 자기 몸을 쌀 삼백석에 팔기로 하고 슬퍼하는 가족을 남겨둔 채 상인들과 함께 인당수로 향하게 된다.

그 와중에 뽕덕과 뽕덕어미는 맹인 심학규를 속여 쌀을 훔쳐내려 하나, 몽은사 스님이 이런 악행을 알아내서 막는다. 마침내 청은 죽음의 인당수에 다다른다. 동물 친구 터병이 또한 청을 따라 여기까지 오는데, 인당수 괴물과 문어 군단이 터병이를 공격해서 서로 거친 싸움을 벌이게 된다.

바다 동물들과 바다 요정들의 도움으로, 터병이는 마침내 인당수와 문어들을 물리친다. 바다 군단의 왕이 이 전쟁터에 뒤늦게 도착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청과 터병이를 용궁으로 데려간다. 용왕이 극진하게 보살펴 준 덕택으로 둘은 회복된다.

### 서브 캐릭터에 모험적인 요소 가미

일 년 후, 용왕은 아버지를 너무나 그리워하는 심청과 터병이를 커다란 연꽃에 실어서 바깥 세상으로 돌려보낸다. 어부들이 특별히 큰 이 연꽃을 발견해서 대궐로 가져가 왕에게 진상한다. 왕과 왕비, 그리고 왕자는 첫눈에 청에게 매료돼 왕자비로 맞기로 결정한다. 심청이 충신 심학규의 딸이란 걸 알게 된 왕은 심학규를 찾기 위해 전령을 보내지만 소용이 없다. 심학규와 동물 친구들 또한 마을을 떠난 것이다. 그러자 왕은 심학규가 나타나리란 기대에 맹인 잔치를 연다.

심학규와 단추, 가희는 불쌍하게 이곳저곳을 헤메던 중 이 잔치 소식을 듣게 된다. 단추와 가희의 도움으로 심학규는 대궐로 향하지만, 그 여로는 험난하고 위협하다. 고난들을 극복한 끝에, 마침내 심학규와 청이 재회하게 된다.

이 감동의 순간, 심학규는 눈을 뜬다.

궁궐에서의 대례식! 불운한 어린 소녀가 깊은 사랑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마침내 왕국의 왕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듯 '왕후심청'은 전통설화 '심청전'의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캐릭터들을 재구성하고 모험적인 요소를 가미해 어드벤처의 성격을 강하게 묘사했다.

디테일하게 묘사된 장면이 많아 현재까지 제작된 그림만도

45만장을 넘어섰다는 게 제작사측 전언이다. 또한 제작사는 각 장면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최신 편집장비를 동원,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OST까지 북한에서 제작 완료

제작사측은 “왕후심청은 애니메이션에서 살릴 수 있는 기술과 전통적 정서가 어우러져 한국인이라는 점만으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다양한 소재로의 확대 및 기술적 공유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작품은 OEM수출방식에서 벗어나 순수 자체 기획 및 제작에 의한 작품을 바탕으로 해외 배급뿐 아니라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 Multi Use)’를 통한 각종 연계 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초기 80분 분량으로 제작을 시도했으나 현재 120분으로 상영시간도 늘려 스펙터클한 화면과 고전적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한층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고전음악을 각색한 분위기의 OST에서 엿볼 수 있다. 코아필름 측은 OST 역시 북한에서 작업했다며 북한 내 ‘영화 및 방송음악단’ 소속 성동환 씨가 작곡하고 김윤미 씨가 부른 ‘왕후심청’ OST는 현재 제작이 완료된 상태로 맑은 목소리가 청중의 귀를 사로잡아 애니메이션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작사측은 음악의 경우 현재 후반작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작업부분이라며 평양에 있는 영화 방송 음악단을 통해 작곡한 음악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정해 삽입할 계획이며, 녹음 및 음향 효과 작업은 미국의 유명 스튜디오를 통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후심청’은 작품의 우수성과 감동을 통해 우리 대중들에게 새로운 각성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적인 정서로 세계 무대에 우뚝



또한 ‘왕후심청’은 소달구지를 타고 가는 우리네 옛날 농촌의 풍경, 제기차기, 말타기 등 지금은 잊혀져 가는 우리 어린이들의 놀이, 한국의 전통 장터의 모습, 전통 인사법과 행동하는 법 등을 자연스럽게 해외에 소개하는 좋은 통로가 될 것이며, 이는 꼭 외국인들에게 뿐만 아닌 아파트와 피자에 더욱 익숙해져 버린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뿌리를 새롭게 일깨워 줄 것으로 보인다.

2년 반에 걸친 최초의 남북 협동 제작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술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왕후심청’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포부대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새 역사를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

### 남과 북이 함께 만든 ‘왕후심청’ 제작 과정

기획	1998년 6월 ~ 2000년 12월	총 감독인 넬슨 신 감독의 작품기획 아이디어 구체화
Pre-Production	1998년 6월	왕후 심청 기획팀 구성 스크립트제작, 모델 디자인, 스토리보드 구성 및 각종 애니메이션 제작 관련 자료 준비
제작	2001년 1월 ~ 2003년 5월	애니메이션 제작
Production	2001년 1월 2003년 5월	SEK스튜디오와 작품 제작 계약 체결 채색작업 완료
후반제작	2003년 6월 ~ 12월	애니메이션의 이미지 효과 작업 및 음악, 사운드 효과(Sound effect), 색보정 등 완전한 장면 작품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종 마무리 과정 진행 중
Post-Production		